

아는 자만 맞고 가는 재림역사

작성일 : 2012. 10. 24(수) 오전 9:20

작성자 : 장정임

(오전 기도 시간에 주일 말씀 중, 성자께서 떠나시며 너희와 늘 함께한다는 의미로 성자바위를 주고 가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. 마지막 재림 준비를 위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께 “주님! 다시 가셨다는 말씀과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지만, 깨닫고 맞는 자들은 이미 그 말씀을 받아 이룬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? 이 시대가 그러하듯 섭리사 안에서도 그러할 줄 압니다. 맞지요? 모르는 자에게는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, 곧 오실 주님이시지만 이미 알고 맞은 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리는 주님이 아니라 함께 사랑으로 혼인잔치를 벌이고 계신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?”라고 말씀드렸습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나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,
맞은 자의 주니라.
사랑하는 자야.
네 상고함이 옳도다.
진정 내가 선생을 통해
그토록 외치고 또 외치던 말씀의 핵심이
바로 그것이니라.
세상은 언제나 나를 기다린다.
구약은 하나님을 기다려 왔고,
신약은 나사렛 예수의 몸을 입은
나 성자를 기다려 왔다.
하지만 그들이 기다린 자가 이미 와서
그들의 눈앞에서 버젓이 역사를 펴고 있었어도
그들은 몰랐고, 또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했다.
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
하나님은 영원히 ‘오실 하나님’이 되어 있고
나는 영원히 ‘오실 주’가 되어 있느니라.
그러나 나는 때가 되었을 때
어김없이 나타나 역사를 이루고 간다.
이미 다하고 갔어도
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그들은
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나.

섭리사야,
30년이 넘는 지난 시간 동안
내가 선생을 통해
누누이 가르쳤던 바가
바로 이것이다.
모르면 못 맞는다.
이미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도 모르고
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기다리기만 한다.
그런 너희의 귀에
나는 선생의 입을 빌어
외치고 또 외쳤다.
오리라 한 그가 왔다고,
이미 와서 너희 곁을 서성이며
맞아 주길 기다리고 있노라고.

섭리사 너희 모두는
그런 나의 말을 듣고
보낸 자의 욕을 통해
다시 온 나 성자를 맞았노라.
너무나 큰 기쁨의 역사였지.
섭리사 너희 모두는
지상에서 이루는
욕적 재림을 맞은 자가 되어
내 사랑스런 신부가 되었지.
신랑의 외침을 알아듣고 맞은
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지.
하지만 이제 또 보아라.
내가 재림을 위해 하늘나라로 간다 하니
떠나간 나를 다시 올 때까지
또 기다려야 하나 하고
한숨짓는 자들이 많구나.

사랑하는 자들아.
아무리 외쳐도
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
나를 맞을 수가 없단다.
지금까지 배워 왔고,
지금도 듣는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의
깊은 의미가 무엇이겠느냐.
모르는 자는 못 맞고
아는 자만 맞는 것이라 하였지 않느냐.
내가 영으로 다시 오는
영 재림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.
내가 어떻게 재림하는지에 관한 비밀은

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다.
너희는 이미 다 배웠고
그래서 내가 어떻게 재림하는지
다 알지 않느냐.
그러면서도 또 기다리기만 한다면
그 어찌 나를 제대로 맞은 자라 할 수 있겠느냐.
육 재림이 그리 일어나듯
영 재림도 그리 일어난다.
이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아라.
아는 자는 맞고 모르는 자는 맞지 못할지니
말씀을 진정 깊이 깨닫고자 몸부림치는 자는
말씀 속에 들어 있는
재림의 답을 확실히 얻게 될 것이니라.
재림과 휴거의 열쇠는
선생이 쥐고 있다.
깨달아라. 섭리사여.
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성자 주니라.